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남녀의 차이

남자는 여자들이 화장품 고르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신문하나를 살 때 들이는 시간과 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는 여자들이 머리말리고 화장하는 시간이 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옷 색깔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는 여자들이 쇼핑가서 몇 시간씩 똑같은 곳을 돌아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한곳만 들어가서 바로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는 여자들이 목욕탕에 가서 2시간 넘게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들이 30분만에 나오는 목욕탕을 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는 계절마다 바뀌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비가오건, 눈이오건 똑같은 남자의 마음을 과연 사람인가? 의심스러워한다.

남자는 사소한 것에 신경쓰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이런 사소한 것에도 신경 못쓰는 남자가 인생을 대충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낮에 그렇게 만나고도 밤 늦게 한시간 씩 전화하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전화 안하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는 화장실을 가도 꼭 친구를 데리고 가서 10분씩 있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화장실을 30초만에 다녀오는 남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여자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 매니큐어가 마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고 남자는 강력본드로 무언가를 붙여놓으면 빨리 마르게 하려고 바로 드라이로 말린다.

이런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는 이성들이 때로는 거리적 거리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

◀그땐 그랬지▶ '문화, 남정임, 윤정희'

할리우드에 오드리 헵번,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영화 전성기 중심에 있던 그들, 하나님도 몰라보게 고친 미인들이 스크린에 넘쳐나는 오늘에 비해 자연미인들인 이들의 모습은 눈부시게 예뻐했습니다. 이들이 1세대 트로이카라면 그들을 이은 정윤희, 유지인, 안인숙은 2세대 트로이카였습니다.

"나 잡아봐라!" 뛰어가며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몇 번 어긋나다 눈이 마주치면 점점 입술이 가까워지던 신파조 같은 그들의 연기가 지금은 웃음 나는 어설피품으로 보여지지만 그때는 왜 그리 가슴이 두근거렸던지요!

이제 이들도 환갑이 넘었을 나이겠지만 내게는 아직 가슴 뛰는 연인들로 남아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3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7월31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		

알고 계신 주님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맘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욕심의 수렁 앞에 선 당신의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하고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떠남과 배신을 체험하신 예수님은  
혼자서도 굳세게 살아보려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하고 호소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함과 실패의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수건을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던 예수님은  
숨은 봉사와 당신이 지불한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오직  
관심만 가진  
29명의 사람의 힘과  
같은 것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여자는  
무거운 걸 들거나 전구를 갈 때  
남자가 도와주길 기대한다.  
연약한 척을 하는게 아니라  
남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서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9 (사 55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0장	
기 도 Pray		김종건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무엘상 3:1-10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7) "최음 선지자 사무엘"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500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7/8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31	김종건	민광호	3구역
7	노은숙	민병구	4구역
14	박일영	박미숙	학생부
21	이광희	박덕철	5구역
28	이규임	박병민	6구역

### ◆8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7	구역예배(12)
14	광복기념주일 믿음의어머니기도회(16)
21	친교주일 식사친교
28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저녁 4시

- 교우소식  
\*Term Break 맞아 이곳 저곳을 방문하셨던 교우들의 귀환으로 '잘 다녀 오셨냐'는 인사말이 교회당 여기저기서 들리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 모임  
\*제4여성교회: 정기월례회  
\*정기당회: 친교 후
-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찬양>  
\*수요일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시간이 못되는 교우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늘 있습니다. 우리교회 성경공부인 수요일의 찬양과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새벽 여명 기다리는 GP의 경계 초병같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55분>  
\*모두 잠든 밤에 깨어 있음은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자랑스러운데 기도하려 깨어 있음은 주님 닮아 있는 듯 거룩함에 잠겨 집니다.
- 학생부 "안전하게 교회건너기" 자원봉사  
\*학생부 교사들께서 손수 길건너기 지도하다보니 교사회와의 예배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 부모님들 위주로 내 자녀 안전하게 길건너는데 지도하여 주십시오 <지도시간> 주일 11:45분-12시 10분 <문의> 김창식 집사(학생부장)

◀작한 시인들▶ 겨울 밤에 시 쓰기  
안도현

연탄불 갈아보았는가  
겨울 밤 세시나 네시 무렵에  
일어나기는 죽어도 싫고,  
그렇다고 안 일어날 수도 없을 때  
때를 놓쳤다가는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 육십축 백열전구를 켜고  
눈 부비며 드르륵, 부엌으로 난 미달이문을  
열어 보았는가.

처마 밑으로 흰눈이  
계층상승육구처럼 쌓이던 밤.

거북이 목을 하고 새벽 바람을 맞  
습니다. 짝짝 달라붙는 얼음 추위  
만큼이나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달  
라붙은 연탄재 만큼이나 을씨년  
스럽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아궁이를 봐야 할  
만큼 사는 것이 자는것에 우선하  
며 모두들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식지않은 아침 구들장이 있고 새  
마을 보일러 위에 얹은 솔의 더운  
물로 세수할 수 있다면 식구 모두  
가 부자된 느낌이었습니다.

살아 내야 하기 보다는 살아가기  
에 더 관심이 많은 풍요로운 오늘  
에 새벽 연탄 가는 열심으로 살  
수 있다면 무척 행복할겁니다.